

# 실리 추구·타인 관람 '新 개인'의 트렌드 다룬다

### 트렌드 전망서 발간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 '2017 대한민국 트렌드' 펴내

2017년을 전망하는 키워드로 '가성비'의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가성비에는 '가격대비 성능비'를 뜻하는 신조어다. 매년 한국 소비자들의 리서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트렌드 전망서를 발간하는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발간한 '2017 대한민국 트렌드'에 따르면 이 시대의 '新 개인'들은 철저히 실리를 추구한다.

소비에 꼭 필요한 '현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만성적인 부족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정보를 찾는 다음 '명분(브랜드)보다 실리(가성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포지션을 유지하며 타인을 관찰한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신뢰 수준까지 더해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편안하지 않은 분위기로 되는 중이다. 모바일과 SNS로 연결됐지만 사회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브랜드보다 가성비, 전문가보다 검색을 신뢰한다. 유명 브랜드, 뉴스 전문가 등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돈 없고 시간 없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가성비 소비 추구)'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소비의 영역을 넘어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존 권위를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광고'와 '브랜드'에 덜 의존적이 된다. 이 습관은 드라마, 영화, 매일 보고 듣는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 제공자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기업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기존에 구축해온 브랜드 권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자신(브랜드)을 믿어달라'고 홍보하기 전에 우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혼밥족·혼술족 등 자발적으로 혼자 활동하는 소비자가 10명중 7명이 넘는 정도지만, 역설적이게도 '혼자 하는 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주 일상적인 인간관계의 결핍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연예인이 아닌 '나와 비슷한 일반인'이 등장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격하게 공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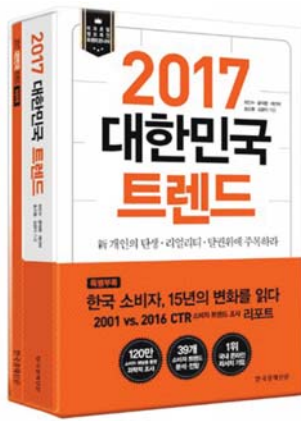
이유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콘텐츠에 공감하고 빠져드는 것이다. 나와 비슷한 타인의 일상이 궁금한 2016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소비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행동관단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경향과도 맞물리면서 조직생활에서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감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의 강화는 사회문제나 공동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진단한다.

결혼, 성(性) 및 인생관의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68.8%(2016년)나 된다. 남녀평등 문화가 확산되고 개인의 생각과 취향이 존중받으면서 결혼, 출산, 이혼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 책을 출간한 엠브레인의 연구진들은 "대중 소비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3~5년 동안 소비자



2017년 대한민국 트렌드

들이 '앞으로 어떤 패턴의 태도와 행동'을 할 것인가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분석자료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2016년 100여건의 자체 기획한 조사와 데이터에 근거했다. 최인수, 윤덕환, 채선애, 송은뜸, 김유미 지음, 396쪽, 한국경제신문사, 1만6000원. /뉴스시스

##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북 이야기 공모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 가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공연스토리, 내가 만든다'의 이야기거리를 공모 한다. 이번 공모는 2017년 새만금상설공연 '심청'의 대본과 전북문화지원을 활용한 시나리오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모소재는 2017년 새만금상설공연 '심청'은 음악극 형태를 기본으로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융합공연을 계획 중으로 대본은 심청이야기를 재구성하거나 새롭게 창작한 내용이면 된다. 또 전북의 인물·역사적 사건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나리오도 공모할 수 있는 스토리 발굴을 목표로 한 것으로 자유롭게 제안해 출품하면 된다.

공모는 10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7년 새만금상설공연 신작 '심청' 대본 공모(최우수작 1천만원, 가작 2편 2백만원), 전북문화지원활동 시나리오 공모(가작 4편 1백만원) 수상작에는 각기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시나리오 공모는 스토리를 완전한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으로 완성하여 2017년에 2차 심사를 진행하며 최우수작에는 1천만원, 가작에는 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새만금상설공연 '심청'의 시나리오 공모



## 3일, 완주군민을 위한 '푸른 음악회' 열려

문예회관에서 3일 오후 7시

완주군민들을 위한 '푸른음악회'가 오는 3일 오후 7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 공연관람 기회가 흔치 않은 완주군민을 위해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가 주최하고 (재)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를 만나 볼 수 있다.

올해로 창단 28주년을 맞이하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최단기간 최다 연주 지휘자의 기록 달성으로 2000년 4월 말레나컴기네스북'에 오른바 있다. 하성호 상임 지

휘자가 이끌어온 서울팝스오케스트라는 1988년 창단 이래 3,000회 이상의 연주이력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팝스오케스트라이다.

첫 무대를 장식한 대한민국 관타자'는 하성호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것으로 광복 70주년을 새롭게 조명하고 또 다른 세기를 향한 희망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다.

이외에도 Feels so good, Hooked on Classic, La Cumpasita For Accordion 등 서울팝스오케스트라에서 편곡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정해은 기자

이날 무대에는 뮤지컬 '닥터자바'와 '명성황후',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보레' 등에 출연한 뮤지컬 가수 이승환과 뮤지컬 '그리스, 진짜진짜좋아해, 카르멘, 드라큘라', 그리고 '무한도전, 나의 파파로티, 시그널' 등 방송·영화 다방면에서 활동한 방글이가 출연한다.

이들은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맨 오브 라미자' 등 뮤지컬로 잘 알려진 곡들을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의 290-2092. /정해은 기자

##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 라사라패션 장세영씨 대상 수상

올해 5번째로 개최된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양편성"이라는 주제로 한지섬유를 재기발랄하면서 창의성이 돋보이게 표현한 라사라패션 전문학교 장세영씨가 수상했다.

대상의 주인공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더불어 상금 5백만원이 수여됐다.

ECO융합섬유연구원(백철규 원장)은 천민송이국화축제와 연계하여 지난날 29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서 관람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패션쇼'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대상(외에도 금상(전북도지사상 상금 3백만원)에는 안동대학교 신희성씨, 은상(익산시장상 상금 2백만원)에는 문은영패션디자인아카데미 김요한씨, 동상(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상, ECO융합섬유연구원장상 상금 각 1백만원)에는 서울패션전문학교 김규리씨, 국제패션디자인전문학교 이시현씨등 16명의 수상자에게 상금이 수여됐다.

수상작은 지난 4월부터 국내·외 대학(원)성과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열정을 담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다양한 종류의 의상으로 선보였으며 스타일화, 실물 인터뷰심사, 패션쇼 최종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익산=장양원기자

## 한국의 전통문화전당 '토크콘서트' 진행

한국의 전통문화전당은 '장인(匠人)의 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마스터 리더십 역량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 명인·명장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영상 사진 기술기법 등 DB구축을 통해 그들의 기술과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기획됐다.

오는 4일 오후 2시 정당 5층 옥상 '하늘마루'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가야금) 고수환 선생을 모시고, '장인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또 명인·명장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신용문 우석대 교수(前 시립극악단 상임지휘자)의 전문가 평가를 비롯해 장인이 직접 만든 가야금을 채육선씨의 연주로 감상하는 자리. 장인으로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 받은 전수자 고성운씨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는 '전수자의 삶' 코너도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1일>

<p><b>▷쥐띠</b> 46년생: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0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고 타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 72년생: 정신이 위지 않으니 혼자 판단하는 일은 삼가고 의논하라. 84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p>	<p><b>▷소띠</b> 49년생: 지나친 고집은 금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 61년생: 주변의 상황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발생한다. 7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 85년생: 마음에 안정이 필요할 때, 작은 일에도 동요가 일어난다.</p>	<p><b>▷호랑이띠</b> 50년생: 매사 부드럽게 행동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2년생: 원한은 삼가라. 좋은 일이 없다. 매사에 주의. 74년생: 처음에는 힘드니 나중에는 좋으니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86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모든 일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p>	<p><b>▷토끼띠</b> 51년생: 타인에 의해 억지로 행동하지 마라. 결과 또한 좋지 않다. 63년생: 심신에 신경써야 하는 운. 무리는 금물. 75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요행을 버리는 일은 금물. 87년생: 분주한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b>▷용띠</b> 52년생: 사소한 일에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때, 방심은 금물.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않는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적대감이 팽배한 운. 8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때, 체계적인 관리 필요.</p>	<p><b>▷뱀띠</b> 53년생: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로 인해 스트레스. 65년생: 멀리 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조금씩 생각하자. 멀리. 77년생: 무신코 던진 말로 인해 곤란함이 생긴다. 매사 진지하게 처신. 89년생: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다.</p>	<p><b>▷말띠</b> 54년생: 외적으로는 잘 풀리거나 내적으로는 막힘이 많다. 66년생: 먼저 배플면 일이 잘 풀린다. 손재수도 따른다. 78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외부로부터 방해 받을 것이다. 90년생: 열심히 해도 당장은 일이주는 이 없다.</p>	<p><b>▷양띠</b> 55년생: 먼저 배플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67년생: 타이가 아닌 자리가 움직일 때 행하여야 좋은 결과. 79년생: 마음이 비좁을 때, 그림자속 여유를 가져라. 91년생: 여자는 이성을 주의하라. 이성으로 인해 상처.</p>
<p><b>▷원숭이띠</b> 55년생: 금전거래는 삼가야 한다. 주지도 받지도 말라. 69년생: 헛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생길 운. 80년생: 지나친 의욕은 금물.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일 없다. 92년생: 정신이 위지 않은 운. 독단행위는 삼가라.</p>	<p><b>▷닭띠</b> 57년생: 뜻밖의 귀인이 나타난다. 그 사람으로 인해 해결. 69년생: 물러서야 할 때와 나이가 할 때를 잘 판단해야 하는 운. 81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 93년생: 고인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p>	<p><b>▷개띠</b> 48년생: 원한은 삼가라. 금전만 손해 볼 뿐 즐겁지 않다. 60년생: 분주하기만 하고 큰 소득은 없으니 감안하고 움직여라. 7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 82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들에 대해 실수가 발생하는 운.</p>	<p><b>▷돼지띠</b> 47년생: 중간 중간 일에 막힘이 있는 운. 내실을 다져라. 59년생: 겉으로는 대처상황이나 내면은 같은 마음이다. 71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83년생: 허나를 던지면 두 개로 돌아오니 언행에 주의하라.</p>